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5

“고객·가족 함께하는 잔치무대
지역민들에 세정지원 홍보해요”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8번째 질주가 25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힘찬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 기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들을 소개한다.

광주지방국세청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극복과 활력을 얻원하는 광주 지방국세청의 하나된 마음을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 발 더 뛰는 세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제48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출전하는 임창규 광주 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힘찬 출사표다. 지속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국내 경제여건 회복이 더디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산하 세무서 직원 및 가족까지 한마음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원을 담아 뛰겠다는 의지다.

특히 임창규 청장은 3·1절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 지방국세청이 한발 더 뛰겠습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시·도민들에게 전달할 생각이다.

임 청장은 부임 첫 일선으로 “지역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세정지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 소재 기업의 세무조사 신청비용을 축소해 수도권 기업과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장기시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정기 세

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제외해 편하게 사업에만 전념토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주 지방국세청과 자매결연을 한 19개 전통 재래시장과 영세 집단상가 납세자를 직접 찾아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를 직접 찾아가는 행진으로 서민지원 강화 계획도 진행중이다. 또 전통과 옛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전통주·장류·묵기·도자기 제조업자 등을 전통·향토업소로 지정해 명백한 탈무 협의가 없는 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납세담보도 면제할 계획이다.

광주 지방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경기장 일대에 홍보부스를 마련해 올해부터 신청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1절 마라톤대회를 통해 든든화자금(ICL)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광주지방국세청 직원들은 제 48회 광주일보 3·1절전국마라톤대회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한 발 더 뛰는 세정지원’을 캐치프라이즈로 시·도민과 함께 뛴 계획이다. 사진은 제47회 대회 출전 모습.

등 국민들에게 유익한 세정홍보도 한다.

임 청장은 “학연·지연 등에 관계없이 투명하게 직원과 화합하고 편하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3·1절 마라톤대회를 통해 세무서 직원 가족까지 만날 수 있어 뜻깊은 잔치가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임 청장은 이날 직원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마음으로 5km를 뛴 계획이다. 평소 건강 체질임을 자부하지만 직원이

까지 만나는 잔치날을 위해 컨디션 조절에 들어갔다.

임 청장은 “모든 임직원들이 납세자를 고객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뜻깊은 시간을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허리가 좋지 않았던 이광영 운영지원과장은 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직원들과 함께 친목을 다지고 화합하며 5km를 완주할 계획이다. 공대규 조서관은 초등생 아들과 함께 뛰

며 부자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건강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뛴다. 지난해 5월 결혼해 아 직은 신혼인 한채운 조서관은 남편과 함께 새봄을 호흡하며 환상의 부부애를 과시할 생각으로 동료 직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매년 3·1절 마라톤 출진이 가족간의 화합과 건강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이현민 납세자보호 담당관은 올해도 아이들과 함께 계사년 새봄의 추억 만들기에 나선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빠름~ 빠름~ 광주 FC ‘光축구’ 시작됐다

중국 광저우 전훈 ... 빠른 패스·빠른 축구로 변신

리아오닝 후인과 연습경기서 승리 본격 전술훈련

중국 광저우=김어울 기자

광주 FC의 ‘광(光)축구’가 시작됐다. 중국 광저우(廣州) 동관(東莞)에서 전지훈련중인 광주 FC가 중국 2부리그 후지나 히어로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술 시합에 들어갔다.

1일 오전·오후 두 차례 경기를 갖고 실전 모드에 돌입한 광주는 3일 삼수 축구센터에서 중국 1부리그 11위 팀인 리아오닝 후인

(2011년 4위)과 대결을 벌이는 등 중국에서 12차례 이상의 연습경기를 준비했다.

프로팀 감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여범규 감독의 스피드 축구인 ‘광(光)축구’의 시합 무대이자 베스트 11을 가리는 시간이다.

올 시즌 광주의 사령탑을 맡은 여 감독은 빠른 패스의 축구를 구상하고 있다. 빠른 패스를 바탕으로 한 빠른 축구가 광주가 추구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축구다.

광주 여범규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첫 경기를 치렀는데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 많다.

1일 첫 경기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3골을 먼저 넣어도 후반에 방심하다가 두 골을 내주는 모습이 좋지 못했다. 더 차분하게 집중해서 해야 했다. 아직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짜 경기 못지 않은 집중력과 플레이를 갖춘 여 감독은 공격 뒷심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여 감독은 “지난해에는 먼저 골을 넣고도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두 골을 먼저 내주고도 승부를 뒤집으면서 첫 스타트를 순조롭게 끊었다. 전지훈련을 하면서 선수들에게 기회를 약속했다. 전반에 뛰든 후반에 뛰든 개의치 말고 경기를 하라고 했다. 기회를 통해서 베스트 11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직은 익숙치 않지만 선수들은 일본 시즈오카에서의 1차 캠프에서 새 전술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중국 광저우 캠프에서 익힌 부분을 몸으로 익히고 있다.

주장 박병주는 “공간을 활용해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다”며 “공수 전환 과정에서 개개인의 불타치가 많아 보나 선수들은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고 체력분배에도 효과적이다”고 밝혔다.

‘광축구’를 위한 선수들의 스피드 테스트는 4일에도 계속된다. 광주는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팀인 구이저우 레헨(1부리그 4위)과 오전 10시, 오후 3시 두 차례 심전에서 원정경기를 갖는다.

wool@kwangju.co.kr

광저우 캠프 특별 지원군 이승대 조리장

먹을거리 해결위해 특별동행
김치찌 등 요리 반응 폭발적

광주 FC 광저우 캠프에는 특별한 지원군이 있다. 광주선수들이 기다리는 시간, 점심·저녁 시간을 책임지는 조리장이 그 주인공이다.

각 프로팀들은 매년 겨울 한 달이 넘는 긴 시간을 해외 전지훈련으로 보낸다.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스테프와 집들이 함께 움직이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중 항복 하나가 김치, 고추장, 라면 등 타국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음식들이다.

전지훈련의 가장 큰 집인 ‘먹을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는 이번 캠프에 아예 이승대(32) 조리장을 동행시켰다.

지난해부터 광주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승대는 선수단과 함께 지난 29일 중국 광저우로 건너왔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호텔 뷔

페식으로 진행되지만 점심과 저녁은 광주만의 식사가 준비된다.

장보기부터 요리까지 꼼꼼하게 이씨의 손길이 닿으면서 선수단은 음식 고민없이 식사시간을 즐기고 있다. 메뉴도 다양하다. 비빔밥에서 김치찌, 사골 미역국, 닭볶음, 제육 볶음까지 선수들의 의견에 따라 그날그날 메뉴가 마련된다.

매일 한식을 접하는 선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다. 고된 훈련뒤 갖는 식사시간은 선수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 중 하나가 됐다.

골키퍼 윤기해는 “해외에 나가면 음식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번 전지훈련은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다. 김치찌가 나왔던 날에는 밥을 4공기나 먹었다”며 웃었다.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선수단 속속 축구 동관시도 정성스런 배려를 하고 있다.

선수단이 머물고 있는 나인데이즈 호텔은 선수들이 마음껏 한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점



광주 FC 선수단이 이승대 조리장이 만든 비빔밥을 먹고 있다.

심·저녁 시간에는 호텔식당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는다. 호텔 지하에 위치한 나이트 클럽도 선수들의 숙면을 위해 운영을 중단시켰다. 거처가 마련된 광저우 인근 동관시에서도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캠프 기간 외부에 동관 공설운동장 대관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매일 아침 롤리 기계를 이용해 세심하게 잔디를 관리하고 있다. 덕분에 선수들은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운동장을 안방처럼 마음껏 사용하며 효율 만점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공격수 박현(오른쪽)이 3일 중국 광저우 삼수 축구센터에서 열린 리아오닝 FC와의 경기에서 공을 쫓고 있다.

/광저우=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후원 : 남해고속

흑산도상리봉 등반및 자유관광
홍도 / 흑산도 특가 이벤트
출발일 당일(씩수날 출발)
여행비 주 중 88,000원 주말 9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흑산도 왕복고속선 흑산도 중식 제공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
출발일 3월1일~2일(1박2일)
여행비 주 중 158,000원
포함사항 광주·목포 왕복교통비/ 흑산도, 홍도 왕복고속선/ 숙박비 (5인이상 합숙)/ 식사비(4식)/ 홍도유람선/ 여행자보험
불포함 흑산도 버스일주관광 선택 (15,000원)